단국대학교 2018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인문계열 문제 및 답안 (오후)

전형유형	논술우수자
수험번호	
성　　명	

[문제 1] 다음의 제시문을 읽고 주어진 물음에 답하시오. (600자 내외) (30점)

1) [가]에서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 하나를 찾고, 그 단어를 중심으로 [가]의 내용을 요약하시오. (200자 내외) (10점)

2) [가]에서 찾은 단어의 관점에서 [나]와 [다]를 요약하시오. (400자 내외) (20점)

[가] ① 석유는 온 세상의 모습을 똑같이 만들어 버렸다. 청바지에 티셔츠, 철근 콘크리트로 된 건물에, 석유로 굴러가는 자동차를 위한 도로 등등. 같은 에너지원을 쓰는 문명들은 서로 엇비슷해진다. 반면 에너지원이 다르면 문화도 달라진다. 티그리스-유프라테스 강 주변에 살던 사람들은 그 강의 혜택을 누렸다. 반면 몽골인들은 말과 양의 젖과 똥으로 생계를 꾸려 나갔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문명을 꽃피웠다.

석유가 사라지면 어떨까? 여러 문화권은 자신들의 원래 에너지원에 매달리게 되지 않을까? 예컨대 우리나라와 일본은 다시 옛날처럼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로 집을 짓고, 그걸 땔감으로 쓸지 모른다. 석유의 몰락은 온 세상의 문화 다양성을 회복시키는 '오일리스 르네상스(Oilless Renaissance)'를 불러올지 모른다.

출처 : 윤여탁 외, 『독서와 문법』

② 에스키모 어는 영어로는 한 단어인 '눈(snow)'을 네 가지 다른 단어, 즉 땅위의 눈(aput), 내리는 눈(quana), 바람에 날리는 눈(piqsirpoq), 바람에 날려 쌓이는 눈(quiumqsuq)으로 표현한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북아프리카 사막의 유목민들은 낙타에 관해 열 개 이상의 단어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영어의 'rice'에 해당하는 개념에 대해 우리말은 '모', '벼', '쌀', '밥' 등이 있다.

출처 : 이삼형 외, 『독서와 문법』

[나] 주어진 조화·질서 및 통일성을 바탕으로 하는 닫힌사회는 현재의 역사 진행 방향과 세계 전체적 관점에서 볼 때에 점점 인류의 추억이 되어가는 것 같다. 그것은 좋았던 한때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인간은 억지로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다. 현대 문화가 다차원적 복수 문화이며 각 개인이 보다 열린 자세를 취해야 이러한 상황에 적절히 잘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은 현대인에게 주어진 조건이다. 문제는 이 조건을 인간에게 도움이 되도록 잘 이용하는 데 있다. 따라서 현대인이 해야 할 일은 다양한 문화적 풍요로움을 억지로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차지하며 효율적으로 서로 나누며 즐기느냐는 것이다.

현대 문화가 다양하고 고차원적이라는 것은 자칫 혼란이라는 불안감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복합성이라고 본다면, 인간 행위에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많다는 것이며, 선택의 여지가 많다는 것은 우연한 위험에 대한 방어의 수단과 가능성도 많다는 뜻일 수도 있다. 문제는 각각의 경우에 따라 이러한 다양성을 어떻게 잘 이용해서 대처하느냐에 있다. 이러한 상황을 '희망적'이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두려워 말자."라고 말하고 싶을 뿐이다.

출처 : 이관규 외, 『독서와 문법』

[다] 아프리카 칼라하리 사막에 살고 있는 부시먼 마을에 어느 날 백인 비행기 조종사가 마시고 버린 빈 콜라병 하나가 떨어진다. 부시먼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콜라병이 신의 것이라고 굳게 믿고 신에게 돌려주기 위해 콜라병을 하늘을 향해 던진다. 하지만 거룩한 신이 이를 받을 리 만무하다. 결국 부시먼들이 콜라병을 소유하게 된다. 콜라병은 부시먼들에게 그야말로 생면부지의 물건이다.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지, 어디에 쓰는 것인지 도통 알 수가 없다. 부시먼

들에게 익숙한 사물의 질서로부터 비껴나 있는 물건이었던 것이다. 콜라병을 처음 마주했을 때 부시먼들의 반응은 실은 라디오 모양의 다리미를 마주할 때 우리의 반응과 다르지 않다. 사물을 이해하는 인식 체계는 특정한 문화나 상황 속에서 형성된다. 부시먼들에게 콜라병이 생면부지의 물건으로 다가온 것은 그들이 우리와 다른 인식 체계와 문화적인 토양에서 살아가기 때문이지 우리보다 미개하거나 '야만인'이기 때문이 아니다.

부시먼들은 콜라병을 땅에 굴리거나 두드려 보고 병 주둥이에 눈을 대거나 입으로 불어도 보면서 여러 궁리를 한다. 쓰임새를 알아내려는 것이다. 궁리 끝에 부시먼들은 콜라병 주둥이로는 가축에 무늬를 찍을 수 있고, 병 바닥으로는 곡식을 빻을 수 있으며, 사냥할 때 쓰는 돌을 날카롭게 가는 데도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콜라병을 만든 사람의 의도와는 분명 다르지만 자신들의 삶에 유용한 쓰임새를 찾아낸 것이다.

출처 : 조현설 외, 『국어Ⅰ』

[문제 2] [가]에 나타난 개념들을 이용하여 [나]와 [다]의 주장을 설명하고, [나]와 [다] 각각의 입장에서 [라]에 대해 논술하시오. (600자 내외) (30점)

[가] 인간은 인격의 주체로서 존귀한 가치를 지니므로 행복을 추구하며 인간답게 살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이 권리는 모든 기본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의 이념이며, 모든 개별적인 기본권의 내용을 담은 포괄적 권리이다.

개인이 자신의 자유로운 영역에 대해서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를 자유권적 기본권이라고 한다. ……(중략)…… 평등권은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정의(正義)'의 관점에서 평등한 대우를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자유권과 함께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본질적인 기본권으로서,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 중 하나에 해당한다. 우리 헌법 제11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규정하여,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 사회를 추구한다고 밝혀 두었다.

출처 : 김왕근 외, 『법과 정치』

[나] 참여자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자원이 배분되는 시장 경제에서는 구성원의 경쟁력에 따라 소득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소득 격차는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해소되기 보다는 오히려 심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조세나 정부지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산재보험과 같은 사회 보험 제도를 통해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저소득층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소득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소득세의 세율을 누진적으로 설계하여 고소득자들에게 세금 부담을 높이는 것이나, 의료 급여나 기초 생활 보장 제도와 같은 사회 안전망 제도를 통해 경제적 약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제공하는 정책 등이 이런 활동에 해당한다.

출처 : 오영수 · 김진영, 『경제』

[다] 노직은 특히 재산권의 자유를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권리로 상정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소유 권리론의 관점에서 재분배는 실제로 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므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근로 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제 노동과 동등한 것이라고 했다. 즉 그의 입장에서 ……(중략)…… 만약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세금으로 5시간의 임금을 내도록 한다면,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5시간을 추가로 일하도록 강제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중략)…… 일부 시민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돕게 할 목적으로, 또는 국가가 시민들 자신의 선(善)과 보호를 위해 특정 행위를 금지할 의도로 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중략)……

누군가의 노동의 결과를 강탈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시간을 강탈하고 그에게 다양한 활동을 명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누군가 당신에게 일정한 시간 동안 특정한 일 또는 보수가 없는 일을 하라고 강요한다면, 그 사람은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며 그 일로 어떤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가를 직접 정하는 꼴이다. ……(중략)…… 오직 계약을 집행하고 사람들을 무력과 절도와 사기에서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최소 국가만이 정당화될 수 있다. 거기서 더 나아가면 어떤 일도 강요받지 말아야 하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고 그런 국가는 정당화될 수 없다.

출처 : 남궁달화 외, 『생활과 윤리』

[라] 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불평등 수준이 1990년대의 수준보다 더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중간 소득의 절반도 못 버는 빈곤층 비율(14.73%)은 빈곤율이 가장 낮았던 1992년(7.68%)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으로 비정규직 등 근로 빈곤층의 확산과 근로 소득의 불안정성 심화 등으로 인한 근로 소득의 양극화를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직업 훈련과 사회 안전망 확대 등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출처 : 박선웅 외, 『사회 · 문화』

② 빈곤의 원인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접근, 즉 빈곤은 가난한 사람들의 개인적 특성에서 비롯된다는 시각과 사회 구조적 불평등에 의하여 발생하고 재생산된다는 시각이 있다. 첫째, 가난한 사람들의 개인적 특성에서 빈곤의 원인을 찾는 시각이다. 게으름, 무절제, 성취동기의 부족 등 개인적 결함이 있어 잘 살려 노력하지 않거나, 장애, 질병, 노령 등의 사유로 사회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낮은 사람들이 가난하다는 것이다. 즉, 이 시각에서는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 등의 부족을 빈곤의 원인으로 파악한다. 둘째, 빈곤을 창출해 내는 사회 구조를 강조하는 시각이다. 계급, 성, 인종 등의 사회 구조를 가난한 사람 각자의 노력으로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은 그 사회의 구조가 그들의 빈곤 탈출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 시각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회 구조의 희생자라는 점을 강조한다.

출처 : 구정화 외, 『사회 · 문화』

[문제 3] [가]를 이용하여 [나]를 설명하고, [다]를 참고하여 [나]의 현상에 대한 가계·기업·정부의 대응 방안을 서술하시오. (600자 내외) (40점)

[가]

표 1. 혼인 및 이혼 건수의 변화 추이

(단위: 천 건)

연도(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총 혼인 건수	393.1	398.5	434.9	388.6	375.6	362.7	334.0	320.1	306.6	304.9	310.9
총 이혼 건수	65.0	68.3	79.9	91.2	116.7	118.0	120.0	135.0	145.3	167.1	139.4

(통계청, 2005년)

출처 : 육근록 외, 『사회』

표 2. 결혼, 이혼 및 부모 부양에 대한 의식 조사

(단위: %)

구분	질문	2002	2006	2010(년)
결혼	반드시 해야 한다.	25.6	25.7	21.7
이혼	이유가 있으면 하는 것이 좋다.	6.6	6.8	7.7
부모 부양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9.6	7.8	12.7

(통계청, "한국의 사회 지표", 2011년)

출처 : 구정화 외, 『사회·문화』

표 3. 연령별 인구 구성비 추이

(단위: %)

구분	1970	1980	1990	2000	2010	2011	2020	2030	2040	2050
0~14세	42.5	34.0	25.6	21.1	16.1	15.6	13.2	12.6	11.2	9.9
15~64세	54.4	62.2	69.3	71.7	72.8	73.0	71.1	63.1	56.5	52.7
65세 이상	3.1	3.8	5.1	7.2	11.0	11.4	15.7	24.3	32.3	37.4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 2010년)

출처 : 이진석 외, 『사회·문화』

[나]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비중이 올해 4가구 중 1가구에 달해 2인 가구를 제치고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 잡는다. 특히 7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는 지난 2010년 48만 가구에서 2035년에는 210만 가구로 4배 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26일 내놓은 '2010~2035년 장래 가구 추계' 자료를 보면 1인 가구 비중은 2010년 23.9%로 2인 가구(24.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올해에는 25.3%로 2인 가구(25.2%)를 웃돌 것으로 예측된다. 1인 가구 비중은 오는 2035년에도 34.3%로 가장 많은 가구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그동안 우리나라의 대표적 가구 형태였던 4인 가구의 비중은 계속 줄어들 것으로 집계되었다.

(서울경제, 2012. 4. 26.)

출처 : 박선웅 외, 『사회·문화』

표 4. 우리나라 가족 구조와 형태의 변화 추이

(단위: 천 가구, %)

구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년
혈연 가구 수		5,576	6,367	7,470	8,751	10,167	11,133	11,928	12,490	12,995
핵가족 (%)	부부	5.4	5.0	6.4	7.8	9.3	12.6	14.8	18.0	20.6
	부부와 미혼 자녀	55.5	55.6	56.5	57.8	58.0	58.6	57.8	53.7	49.4
	한 부모와 미혼 자녀	10.6	10.1	10.0	9.7	8.7	8.6	9.4	11.0	12.3
직계 가족*(%)	부부와 양(편)친	1.4	0.5	0.6	0.8	0.9	1.1	1.2	1.2	1.2
	부부와 양(편)친과 자녀	17.4	10.9	10.4	9.9	9.3	8.0	6.8	5.7	5.0
기타 가족		9.7	17.9	16.1	14.0	13.8	11.1	10.0	10.4	11.5

*직계 가족 : 직계 2세대 이상의 가계 계승자 부부나 이들과 이들의 미혼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통계청, 2011년)

출처 : 신형민 외, 『사회 · 문화』

[다]

가계의 경제적 역할

상품의 수요자 역할	- 가계란, 기업으로부터 상품을 구입하는 개인이나 가족을 말한다. - 가계는 상품의 수요자 역할을 하며, 상품 수요를 통해 가계의 경제적 욕망을 충족할 수 있다. - 가계의 상품 수요로 기업이 존속하고 발전한다.
생산 요소의 공급자 역할	- 가계는 생산 요소의 공급자 역할을 한다. - 가계는 생산 요소의 공급을 통해 소득을 얻는다.

기업의 경제적 역할

상품의 공급자 역할	- 기업은 이윤을 얻기 위해 생산 활동을 한다. - 기업은 가계에 상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생산 요소의 수요자 역할	- 기업은 가계로부터 생산 요소를 수요하는 역할을 한다. - 기업의 생산 요소 수요는 가계에 취업의 기회를 제공한다. - 기업은 투자와 생산 활동을 통해 고용을 창출한다.

정부의 경제적 역할

자원의 효율적 배분	-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란, 최대 효율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원을 나누는 것을 말한다. - 정부는 재화 및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거나 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한다.
소득 재분배	- 시장에 의한 소득 분배는 소득 격차를 발생시키는데, 정부는 소득 재분배 정책을 통해 소득 격차를 완화한다.

출처 : 김종호 · 안병근, 『경제』